



##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2015. 11. 2 |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 smj@saesayon.org

실업률과 니트족의 변화를 통해 본 청년문제는 어둡다. 그리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권이 여러 번 바뀔 동안 눈앞에 닥친 과제만을 보았을 뿐, 장기적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모든 정권이 공통적으로 실시한 청년 인턴제는 현장경험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채용과 경력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희망고문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단지 이력서를 채울 한 줄짜리 자격증처럼 여겨지고 있다.

###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여러 해 동안 청년의 구직난을 시작으로 한 청년문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아졌지만 체감 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측면이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 및 사회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의 불안함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회복이 더딘 경제는 ‘원하는’ 직업보다 가능한 ‘어떤’ 직업으로든 취업을 하자는 맥없는 화이팅만 남겨놓았다. 장기간 지속된 불안함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법을 선행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숙연하다.

청년문제 및 대응정책을 논의 할 때, 청년 실업과 고용관련 정책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이 갖는 함의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당장 직업 기회뿐만 아니라 추후 경력이나 숙련의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되는 청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직무교육(훈련)이나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경력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니트족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즉 청년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위기를 타계하고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권별로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았고,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청년 실업률 및 청년 니트족의 변화와 정권별 청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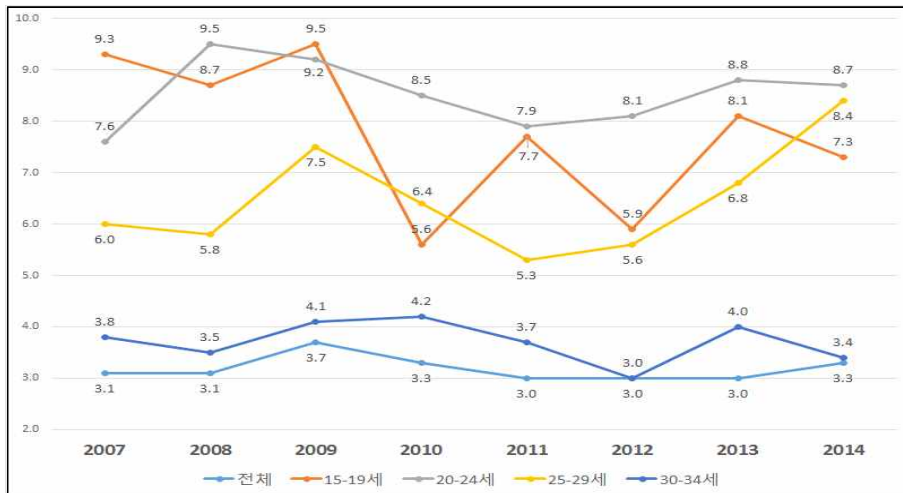


을 보고, OECD국가들에서 시행한 청년정책들과 비교하여 국내 청년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속되는 청년실업과 청년문제

그림 1. 2007-2014 전체 및 청년 실업률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4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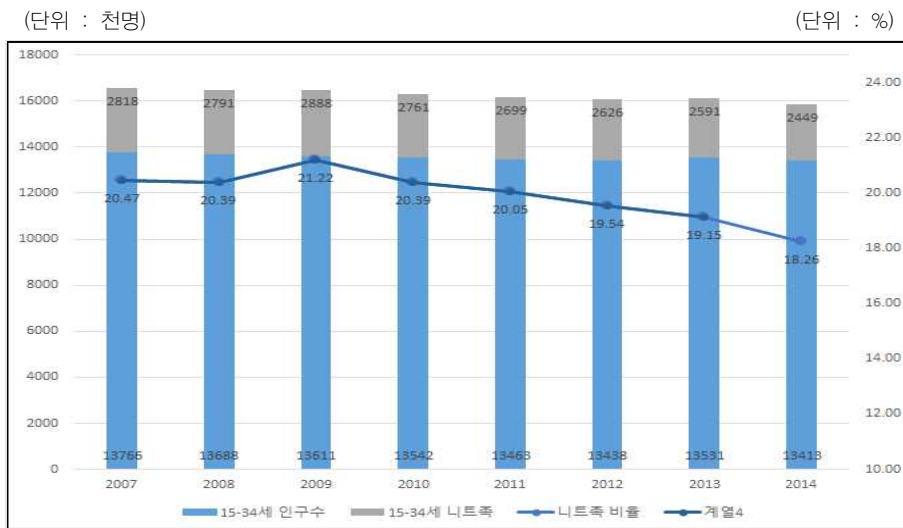
그림 1은 2007년부터 2014년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도출한 실업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 실업률과 10대 후반(15세-19세), 20대 초반(20세-24세), 20대 후반(25세-29세), 30대 초반(30세-34세)의 실업률을 각각 나타내었다. OECD에서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을 청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졸자가 증가하고 고학력자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의 당사자가 되어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30대 초중반까지 늘어난 형태이다. 따라서 15세-34세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실업률은 3% 초반인 것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다. 특히 20대가 계속해서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고점을 갱신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의 실업률은 최근 3년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2011년부터 높아져 2014년에 8.4%를 기록하였다. 대학 졸업자가 취업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2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대졸자 취업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세-19세의 중졸 취업자는 시기별로 큰 변동을 보이지만 평균에 비해서는 항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는 2007년과 2014년 사이의 청년인구와 청년 니트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5세-34세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그리고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을 통학하는 청년을 제외하여 니트족의 규모를 추계하는 OECD 방법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도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청년 인구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줄어들었다. 청년인구 대비 니트족 규모는 2009년 21.22%로 최고점을 찍고 2014년에 18.26%로 약 3% 줄어들었다.

그림 2. 15-34세 인구수 및 니트족 규모변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4 (8월 기준)

그림 3. 15-34세 니트족 연령 분포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4 (8월 기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위 그림 3과 아래 표 1을 통해 니트족을 연령별, 활동상태별로 분류해 보면 또 다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일단 그림 3에 나타난 니트족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초반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니트족의 60% 이상은 25세 이상으로 니트족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표 1. 2007, 2014년 15-34세 니트족 활동상태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7	2014	2007	2014	2007	2014	2007	2014
구직활동	6.91	7.63	15.79	16.84	16.03	19.47	8.15	7.99
발령대기	0.45	0.00	0.11	0.27	0.35	0.46	0.07	0.39
육아	0.66	0.73	8.10	6.33	31.68	23.08	55.03	55.25
가사	1.84	0.44	6.25	6.16	13.86	9.83	18.80	15.56
입시학원 통학	34.47	39.37	2.11	2.23	0.54	0.17	0.05	0.10
취업준비	2.13	3.34	16.80	20.85	17.39	23.68	4.32	5.94
진학준비	18.74	17.22	16.11	8.22	3.03	2.41	0.47	0.31
심신장애	2.05	0.73	2.21	2.61	1.70	3.16	2.28	2.14
군입대 대기	13.39	11.90	5.71	7.98	0.00	0.19	0.00	0.00
결혼 준비	0.00	0.00	0.30	0.37	0.54	0.68	0.27	0.37
쉬었음	17.36	16.65	22.72	26.17	13.10	15.81	9.62	10.82
기타	2.01	1.99	3.81	1.98	1.78	1.03	0.93	1.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2014년 (8월 기준)

표 1에 나타난 니트족의 연령별 활동상태를 보면, 육아 및 가사를 제외하면, 쉬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15-19세는 연령의 특성상 입시학원 통학과 진학준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쉬었음으로 응답한 니트족의 비율보다는 구직 및 취업준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20대 초반의 니트족만이 2007년과 2014년 모두 20% 이상의 비율로 쉬었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과 표 1을 함께 보았을 때, 10대의 니트족은 진학준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니트족은 구직 및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나 쉬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쉬고 있는 청년들은 구직 단념자일 확률이 높다. 청년실업정책은 단순히 기간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도전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정권별 청년실업정책 비교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 후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 후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정규



직 채용 자체를 줄이며 다양한 형태의 인턴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을 증가시켰다. 특히 인턴제도의 경우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의 단계처럼 인식되었으나, 정부에서 청년 실업 대책으로 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위상이 달라졌다. 인턴제의 남발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졌고, 이력서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이 불안정한 자리는 청년들의 자리가 되었다. 인턴제와 같이 청년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도리어 청년을 희망고문 하고 있다.

표 2.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차이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정책목표	외환위기 극복 실업자 유형구분 '실업문제 종합대책'	양극화 해소 고용 친화적 성장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세계금융위기 극복 선취업 후진학 '국가고용전략회의'
전달체계	국무총리실 산하 실업대책실무위원회	당정공동특별위원회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고졸 이하 고용 T/F	일자리 대책 평가단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 사회안전망 T/F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중앙부처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기업 · 대학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역노동시장 위기관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 · 대학
주요특징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 정부 지원 인턴제 '워크넷' 운용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고용정보센터 확충 '잡넷' 운용 평생교육능력개발계획 고용장려금 지급 맞춤형 서비스 구축	직업능력개발체제 산학 연계 체제 구축 평생학습체제 확립 해외 취업 · 창업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졸자 취업 기회 확대

출처 : 김영재(2013) 한국 청년실업정책 비교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김영재(2013)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 분석 하였다. 김영재(2013)가 정리한 각 정권 별 청년 실업 정책의 특징은 위 표 2와 같다. 각 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에 처한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전체적인 실업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 실업대책을 시행하면서 실업자를 분류하여 유형별 대처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심화된 실업률의 원인을 '고용 없는 성장'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때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일원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고졸 청년들의 취업, 창업, 해외 취업과 산학연계에 힘을 썼다.

세 정권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중앙에서 청년실업문제를 관리했다는 것과 청년인턴제를 꾸준히 유지시킨 것이다. 또한 교육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다루었다. 김대중 정부 때 실시한 청년인턴제는 이후 두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청년인턴제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신규 채용 자체를 줄인 상태에서 인턴의 자리만 증가하자, 인턴채용에도 경쟁이 심화되었다. 반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공공기관의 인턴 등은 단순 사무직 및 사무실 관리 등을 시켜 직업훈련과는 상관 없는 업무를 보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인턴제와 같이 실제로 직접 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들과 인재를 찾는 기업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정책을 실시할 때 ‘몇 명을 인턴제에 고용하여 몇 명이 현장에서 실습하였다’와 같이 수치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기 쉬운 기준으로 정책을 답습하다 보면 좋은 의도가 가려지게 된다. 각 정권별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 하였고,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고자 특색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쉬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니트족으로 지내는 청년들은 5명중 1명 수준이다.

## OECD 국가들의 니트족 관련 정책<sup>1)</sup>

청년실업과 청년 니트족 문제는 국내보다 유럽과 일본 등 국외에서 먼저 이슈가 되었다. 이들 국가는 직접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았거나 이전에 누적된 청년 문제들이 국제적 위기를 계기로 발현되었다.

OECD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각 국가들은 청년층이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고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필수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 OECD에서 2015년 2월에 발표한 니트족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관련 정책은 크게 6가지이다. 특별학교 프로그램, 정규학교 지원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도제제도, 재도전프로그램 그리고 고용 보조 프로그램이다. 고용 보조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노동공급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

1) 김문희 (2015) 금융위기 이후 청년 니트(NEET)족의 도전 과제와 관련 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IEW, 80호, 글로벌리포트 인용



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용 보조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장·단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동수요 측면을 보조하는 정책이다.

먼저 청소년들이 청년 니트가 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학생들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특별학교 프로그램과 정규학교에서의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특별학교와 정규학교의 지원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니트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성취를 하는 것을 돕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10대 20대의 니트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다. 멘토링프로그램은 많은 OECD국가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여 교육성과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한다.

도제제도는 직장 내 훈련과 교육을 병행하여 초기부터 직장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 특히 저학력 청년들이 도제제도를 거치고 나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훌륭한 제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시스템을 갖추거나 이에 준하는 유사 훈련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요측면에서는 고용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서 임시직을 제공하거나, 민간부문에서 대상 청년들을 채용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저숙련 및 저학력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OECD 국가들의 니트족 관련 정책을 보면 청년의 연령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청소년기에 미리 방지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제제도와 고용보조 프로그램을 보면 기업과의 협력도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정책들과 OECD국가들의 정책 간 비교하기엔 목표 대상과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미래에 청년이 될 청소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과 중앙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답습하는 정책은 그만

실업률과 니트족의 변화를 통해 본 청년문제는 어둡다. 그리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권이 여러 번 바뀔 동안 눈앞에 닥친 과제만을 보았을 뿐, 장기적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모든 정권이 공통적으로 실시한 청년 인턴제는 현장경험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채용과 경력



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희망고문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단지 이력서를 채울 한 줄짜리 자격증처럼 여겨지고 있다.

반면 OECD의 정책들을 보면 청년 니트족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업에서 청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제제도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이 역량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OECD국가들의 정책은 저학력 저숙련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니트족은 고학력화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많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OECD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기업에서 직접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도제제도와 같은 정규시스템이나 채용 보조금 등을 통한 고용 기회 확충은 현재 국내 기반에도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취업을 포기한 세대들의 꿈을 그려주는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년들이 꿈을 그럴 도화지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제도로서 만들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지를 들여다 보고 열린 채널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미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그 도화지를 마련하는 길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11월 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 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①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고용,노동	7/24	2015년 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김수현
지역,사회	7/27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강세진
고용,노동	8/3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②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③	강세진
고용,노동	8/24	2015년 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김수현
경제	8/31	빈곤의 정의와 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최정은
복지	9/11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최정은
주거	9/22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강세진
고용,노동	9/24	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 : 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10/5	휴일무일	이정아
주거	10/19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3) 쇠퇴지역	강세진
고용,노동	10/27	2015년 9월 노동시장 분석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김수현
복지	10/30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③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	배지영
고용,노동	11/2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송민정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